



순창군이 작은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확대 하면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 순창 문화시설 확대 ‘결실’

작은영화관 누적관객수 5만4,868명 넘어 · 옥천미술관도 관람객 증가

순창군이 작은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확대 하면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작은영화관이 9월 19일현재 누적관객수 54,868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수치로 보면 10개월만에 지역 인구의 두배 정도의 인원이 영화를 관람한 수치다.

연휴 기간인 지난 10일에는 하루 관람객이 850명을 넘어서 개관 이래 1일 최대 관람인원 기록도 경신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기간 관람객만 3천여명이다. 도내 작은영화관에서 도 이례적 열풍이다.

추석연휴 고향을 찾은 이영식씨(58, 서울)는 “순창에도 영화관이 개관했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시설도 훌륭하고 대형 극장에서 개봉하는 최신 영화를 개봉해 놀랐다”며 “발전하는 고향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순창 작은영화관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신 상영시설을 갖추고 대도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동시 상영하기 때문이다.

또 영화관 개관기념 북콘서트, 3·1절 호국영화 상영 등 다양한 기획전도 인기의 한몫을 하고 있는 걸로 풀이되고 있다.

군측은 그동안 인근 대도시로 나갔던 영화 관람객을 순창 ‘영화산책’ 작은영화관이 고스란히 흡수해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영화관의 인기와 더불어 옥천미술관의 관람객도 증가하고 있다.

작은 미술관은 폐 농협창고를 개조해 만든 미술관으로 올해 4월 개관했다. 1층은 전시실 2층은 학생들의 미술공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명절전인 지난 8일부터 한국화가 이철량 화백의 그림도 전시되고

있어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미술관을 찾는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작은영화관 2층에 자리잡은 청소년 문화의집은 노래연습실, 밴드 등 동아리방 등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평일 40명, 주말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순창군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주민들이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휴식도 취하면서 주민 사랑방으로 사랑받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민선6기 출범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평가 · 건의 · 자문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 군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군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계층의 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했다.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약평가단 회의’는 박우정 군수와 각 분야 및 읍면 추천을 받아 구성된 30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매년 12월 군수공

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건의·자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생활복지 실현과, 문화관광 기반구축, 명품 농어촌 건설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 분야 23개 사업, 32개 세부사업을 분류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확대와 무료예방접종 확대 등 7개 사업은 조기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무료예방접종은 대상자를 65

세에서 60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매년 2만여 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는 성과를 올렸다.

박우정 군수는 “군정 현안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며 “이러한 군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고창,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 데 공약이행평가단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민군수, 임실N치즈축제 준비상황 점검 나서

추진상황 · 기반시설 등

심민 군수가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나서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점검 등 현장 소통행정에 나섰다.

20일,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을

찾은 심 군수는 치즈팜랜드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 기반시설 및 준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이날 현장행정은 임실N치즈축제와 관련한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준비에 따른 부서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민 군수는 “현장행정을 통해 급변하는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임실N치즈축제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조림지 풀베기 사업 완료

순창군이 경제수 및 밀원수 조림 996ha에 대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최근 완료해 돈버는 숲 만들기에 도움을 줬다. 이번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지난달 초부터 약 40여일간 진행돼 경제수들의 생육을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가 됐다.

조림지 풀베기란 조림목 주변에 햇빛과 수분, 양분을 빼앗는 잡초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조림목의 생장속도에 따라 3~5년간 작업을 실시한다.

군은 특히 조림목 피해최소화를 위해 묘목주변 돌레베기 작업을 선행한 후 조림지 전 면적내의 모든 잡초목을 제거하는 모두베기를 실시해 사업효과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작업을 1.2차로 구분 실행하여 어린나무가 미래에는 건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며 “조림지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수 및 밀원수를 육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사업

신규 창업농에 임대 · 임차기간 3년~5년 · 임대료 협의

남원시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세대, 귀농·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을 통해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 여부, 지자체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안 1,000㎡~1,982㎡ 이하 농지를 매입 후 2030세대, 귀농인,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기간은 3년~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해당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농어촌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매입한 농지의 60%는 남원시에서 추천하는 귀농인에게만 임대해 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남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협업하여 추진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영농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신규 취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해줌으로써 농지 매입비용을 줄이고 영농기술 습득을 통한 안정적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는 남원시 농정과(620-636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620-20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물 용역보고회

제작설치 · 홍보공간 조성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풍천장어와 복분자를 다방면에서 활용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보고회’가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의 전시물 제작설치 및 홍보공간 조성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질의를 받았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863.1㎡규모로 지난 해 6월 준공되어 체험실습실 및 전시홍보실, 식당과 카페테리아가 갖춰져 있다.

센터에서는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연계한 체험·홍보시설로 운영돼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와 풍천장어의 조화를 통한 명품고창 홍보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풍천장어와 복분자의 효능과 우수성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시물과 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풍천장어와 복분자의 구매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실시

임실군이 오는 11월 11일까지 '2016년 하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읍·면별로 실시한다.

이동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군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 19일 운암면을 시작으로 지역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검진 해당자로 기초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

검사 등 22개 항목의 1차 검진을 실시한다.

이어, 2차 검진은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 등)로 판정될 경우 군 보건의료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검진당일 공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 부모 부재중 아동안전 보호제 운영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 상하치안센터는 추곡 수확기 농촌철이 접어들면서 일손이 바쁜 농가에서 부득이 아이들만 집에 두고 출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 부재중에는 아동성범죄 취약성이 크게 노출 되고 있다.

진방헌 상하치안센터장은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부재중 아동안전 보호제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아동 성범죄 대처요령과 더불어 경찰 업무를 설명하고 순찰차 탑승 및 무전기 사용, 삼단봉 등 경찰장비를 직접 만져보게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아이를 둔 부모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경찰, 테마 방법활동 ‘호평’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순화파출소가 계절·요일별 맞춤형 테마 방법활동을 전개하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다.

맞춤형 테마 방법활동이란 순화파출소 자체시책으로,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어느 계절에 어떠한 유형의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통계 내어, 각 계절별 신고가 많이 접수된 유형에 맞추어 맞춤형 예방 방법 활동을 하고 있다.

가을(9~11월)의 주요 테마는 빈집털이 예방활동으로, 수확기와 행락철에 접어들어 농가와 빈집을 집중 순찰하며 장기간 집을 비울 시 예약순찰을 접수 받아 절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절도 예방, 농산물 저장소 순찰, 빈집털이 낚시기 예방근무 등 무작위한 근무가 아닌 요일별 근무 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외에도 봄에는 농번기 빈집털이, 여름엔 휴가철 성범죄 및 농축산물 절도, 겨울엔 농산물 저장소 및 금은방 강·절도 예방근무 등 사계절에 맞추어 체계적 방법활동을 진행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장흥군 상호 협약 체결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장흥군(군수 김성)이 관광산업 협력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박우정 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지역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열리는 ‘제43회 고창 모양성제’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장흥군 안암면 비동리 일원에서 열리는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를 비롯한 관광상품 개발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고창군은 농업, SOC, 관광이 잘 개발된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박람회의 성공개최와 장흥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통해 통합의학산업의 발전은 물론 치유와 휴식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고창군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장흥군과 고창군의 관광산업과 지역 발전 등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농협, 농산물 무인판매대 운영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남원농협 산동지점에 지난해부터 도내 최초로 농산물 무인판매대를 운영하여 농산물 유통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남원농협 조합원이 생산한 포도, 사과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대에 진열해 놓으면 고객이 농산물을 갖고 가며 양심껏 돈을 낸다.

주 고객은 17면 국도(남원~장수) 이용자들이며, 지난해에 이어 “기쁜 두 배 만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은 “남원농협 무인판매대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며 유통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판매비용(인건비)까지 없애 소비자가를 낮은 신 유통 형태이다”며 “앞으로도 남원 농협은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농협 이미지 제고 및 조합원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